

2024 파키스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IMF 구조조정과 예정된 총선 실시로 정치·경제 안정화 달성	6
나. Make in Pakistan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진 노력 강화	7
다. K-브랜드 자동차 진출 가속화로 산업 한류(韓流) 확산 기대	8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0
2. 시장 분석	18
가. 시장 특성	18
나. 교역	19
다. 투자	23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5
가. 교역	25
나. 투자 진출	28
다. 주요 경험 의제	30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33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4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5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52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54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5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6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 2021/22년 회계연도 파키스탄 경제는 국내 산업 및 소비 수요 회복에 힘입어 6.2%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으나, 2022년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 식품 등 물가 급등, 홍수로 인한 피해 등 대내외적 충격으로 2022/23 회계연도는 성장세가 3.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파키스탄은 2022년 총리 불신임안 처리로 정권이 교체되고, 2024년 초 과도정부 체제 하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도 지속될 전망이다.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마무리, 파키스탄 정부의 홍수 피해 복구사업 규모, 글로벌 분쟁의 향방에 따라 2024년 파키스탄 경제 회복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가. 시장 전망

▣ 2024년 경제 전망 : 경제 위기 지속으로 2023년 대비 경기 더욱 침체 전망

- (경제성장률) 2022/23 회계연도 1.7%의 소폭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2023/24 회계연도에는 마이너스 성장(-0.3%)을 전망(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 2024년에도 파키스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낮은 성장률, 정치적 불안정 등 경기 불안 요소 확대 전망
 - * 2022년 홍수로 인한 인프라 피해, 소비 침체, 글로벌 수요 둔화, 투자를 억제하는 고금리를 반영하여 2023/24 회계연도에는 실질 GDP가 소폭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대외 여건) IMF 관리체제 구조개혁 이행, 러-우 사태, 중동(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불안정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미중 패권 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은 지속
 - * IMF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분기별로 경제개혁 이행 성과를 평가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 유도
 - * IMF 및 ADB는 2023/24 회계연도 파키스탄 경제성장률을 3.5%, 2.0%로 낙관 전망
- (대내 여건) IMF 구조조정과 긴축 요구에 따른 고금리 유지, 에너지 비용 상승과 높은 물가에 따른 서민고 가중, 2023년 총선 지연 등 불안 요인 상존
 - * EIU는 2022/23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32.2%로 사상 최고치 기록, 23/24년에는 21.3%로 전망
 - * 파 중앙은행 2023년 8월 기준금리를 22%로 사상 최고치 인상, 2024년 중반까지 유지 예상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구	백만 명	223.3	227.2	231.4	231.5	247.6 ^{주1)}	-
명목GDP (회계연도 기준)	십억 달러	320.9	300.4	348.3	376.5	343.7 ^{주4)}	-
1인당 명목GDP	달러	1,481.8	1,359.5	1,537.9	1,596.7	-	-
실질성장률 (회계연도 기준)	%	2.5	-1.3	6.5	4.7	1.7	-0.3 ^{주4)}
실업률	%	6.1	11.5	10.3	9.3 ^{주4)}	9.6	9.9 ^{주4)}
소비자물가상승률	%	12.4	8.0	12.3	19.9	32.2	21.3 ^{주2)}
재정수지(GDP대비)	%	-7.9	-7.1	-6.1	-7.9	-7.0	-6.1 ^{주2)}
총수출	백만 달러	24,800	21,841	29,068	31,500	26,200 ^{주4)}	29,700 ^{주4)}
(對韓 수출)	백만 달러	419	226	328	487	158 ^{주3)}	N/A
총수입	백만 달러	47,681	44,013	66,586	65,700	57,200 ^{주4)}	61,500 ^{주4)}
(對韓 수입)	백만 달러	833	1,073	1,546	1,199	514 ^{주3)}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22,881	-22,172	-37,518	-34,200	-31,000	-31,800
경상수지	백만 달러	-8,558	-651	-12,262	-12,100	-2,600	-65,000 ^{주4)}
환율(연평균)	PKR/US\$	154.87	159.59	176.52	204.9	280.5	295.4 ^{주2)}
외국인직접투자 (회계연도 기준)	억 달러	13.6	26.0	18.2	18.7	14.55	N/A

참고1) 2023년도는 추정치(일부 확정치), 2024년도는 전망치, 회계연도(전년도 7월~당해연도 6월)

참고2) 인구와 명목GDP는 EIU 보고서, 1인당 명목GDP는 세계은행 DB

참고3) 2023년 총수출, 총수입, 무역수지 예측치는 EIU 보고서, FDI는 파키스탄 중앙은행

주1) 2023년도는 CIA 추정치

주2) 2023년 말 기준 EIU 전망치

주3) 2023년 7월 기준 무역협회 통계치

주4) 2023/24 회계연도 기준 EIU 전망치

자료: World Bank, State Bank of Pakistan, EIU Country Report, KOTIS

- ※ IMF 구조조정과 상반기 예정된 총선 실시로 경제 위기 극복
- ※ Make in Pakistan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진 노력 강화
- ※ K-브랜드 자동차의 진출 가속화로 산업 한류(韓流) 확산 기대

가. IMF 구조조정과 예정된 총선 실시로 정치·경제 안정화 달성

▣ IMF 구조조정 기간 중 에너지 수입가 급등 및 홍수 피해로 경제 충격 가중

- 2023년 7월부터 9개월간의 3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조조정 이행 중
 - 긴축재정(수당 및 연금 동결, 공무원 채용 중단),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시장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등을 골자로 9개월간 총 30억 달러 지원
 - * 2023년 6월 30일, IMF는 파키스탄 신정부와 SBA 약정 합의(1차 12억 달러 지급, 2차 7억 달러 연내 지불 예정)
-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조기에 극복했으나 대내외 요인으로 경제 부담 가중
 - 코로나19 종식으로 2022/23 회계연도 GDP는 총 1.7% 성장했으나, 전년도 우-러 사태에 의한 글로벌 유가 급등으로 무역적자 확대 및 물가 급등, 대규모 홍수 피해 발생으로 경제에 부정적 충격 가함
 - * '22년 하반기 글로벌 신용등급사 일제히 파키스탄 전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

▣ 예정된 총선 실시로 신정부 출범이 경제 안정화의 관건

- 2022/23년도 IMF 관리 체제 하에 대내외 충격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됨
 - 외환위기와 지난해 대홍수를 경험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하여 전년 대비 3.0%p 감소한 1.7%를 기록하고 소비자 물가도 전년 대비 12%p 이상 상승한 32.2%를 기록함
 - * 엄격한 외환 통제로 수입이 전년 대비 13% 감소, 중간재 부족으로 인해 주요 산업 생산 위축
 - * '23년 5월 기준, 환율이 1달러당 200루피를 돌파한 이후 '23년 10월 현재 달러당 280루피를 기록하여 가파른 평가절하 지속

- 2024년 차기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안정 달성 시 비즈니스 신뢰도 향상 전망
 - 상반기 내 신정부의 성공적 출범으로 IMF 요구 개혁정책의 지속 추진 가능
 - * 재정 및 통화 긴축, 시장 결정 환율 복귀, 에너지 국영기업 개혁 및 민영화 조치 등 중단없이 추진
 - 다만, 에너지 가격 인상 및 관세 인상 조치, 수입 및 환율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루피화가 더욱 악화되어 수입품 가격은 더욱 상승, 물가 상승 압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

나. Make in Pakistan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진 노력 강화

▣ 자국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 경제 회복, 고용 창출 추진

- 지속적인 관세구조 합리화(Tariff Rationalization), 수출 확대와 연계된 산업협력과 투자 유치 지원 강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지속 추진
 - * 완제품 수입 억제를 위해 중간재 관세 인하(National Tariff Policy 2019~24), 부품 국산화 확대 (자동차부품, 핸드폰 등)를 통한 제조 역량 강화 추진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달 2~3개의 규제를 완화(Regulatory Guillotine)하고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 조치를 강화 중
 - * 2022년 6월, 파키스탄 수출입은행법(The Export-Import Bank of Pakistan Act) 의회 통과

▣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유치 및 산업협력 노력 강화

- 농업, 섬유, 자동차, 에너지 부문 등에서의 기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유치 및 해외 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지속 확대
 - 특별경제구역(SEZ) 활성화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산업협력 확대를 도모
 - * 2021년 현재 파키스탄 전역에서 승인된 SEZ는 총 22곳이며, 이 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된 곳은 9개로 전체의 41% 차지
- 2019년부터 2단계로 진입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도 기존의 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특별경제구역(SEZ) 활성화를 통한 양국 산업협력을 강조
 - SEZ 개발을 통해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 등을 기대하며, 그간의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
 - * 2020년 9월 CPEC 최초의 SEZ인 'Rashakai SEZ' 개발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PPP) 협약이 KP주 경제구역개발공사(KPEZDMC)와 중국 China Road & Bridge Corporation 간에 체결

▣ 파키스탄 제품의 전략적 해외시장 접근 강화

- 2019년 12월 1일부로 중-파 FTA 2단계 협정(CPFTA-II) 발효
 - 파키스탄은 향후 15년, 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양국 전체 교역품의 약 75%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양국 교역관계 긴밀화
 - * 중국은 파키스탄에 대해 15년에 걸쳐 6,178개 품목에 대한 단계적 무관세를 적용
 - * 파키스탄 수출 품목(섬유 및 의류, 수산물, 육류 및 가공식품, 가죽, 화학, 신발, 석재, 산업재 일부 등)의 중국 시장 접근 강화(관세 철폐),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1,760개 보호 품목 지정
- Look Africa Policy Initiatives 등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 확대
 - 북미와 유럽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50%가 넘고 섬유 부문이 전체 수출 품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
 -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지역 확대, 제약 및 농수산물 등으로의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노력 강화
 - * 파키스탄은 인도와 달리 아프리카 국가와 1개의 FTA만 체결한 상황 (인도는 아프리카 13개국)
 - * 파키스탄 상무부는 향후 5년 내 동아프리카 수출을 2배로 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다. K-브랜드 자동차 진출 가속화로 산업 한류(韓流) 확산 기대

▣ 경기 침체에도 현지에서 조립 생산된 기아·현대차의 판매 호조

- 車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도 K-브랜드 차량의 생산·판매 활성화
 - 2022/23 회계연도 파키스탄 車 판매량은 9만 6,000대로 전년도 23만 대에서 기록적인 감축을 기록하였으나 현대기아차는 시장점유율 유지(15% 내외)
 - * L/C 제한, 고물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소득 수준 감소로 판매 급감
 - * 2023년 현대니샤트 생산차량 판매는 8,639대로 전년도 11,287대에서 26% 감소 기록
 - * 현지 일본차 대비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으로 파키스탄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상황
- 일본 자동차 독점 구조가 점차 약화되면서 시장의 판도 변화 예고
 - 자동차산업 육성정책(ADP 2016~21)의 CKD 관세 혜택 만료가 다가옴으로써 한국차의 현지 제조사 1차 벤더의 부품 국산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향후 성장 관건
 - 2022/23 회계연도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CKD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 제한 및 자동차 메이커별 부품 수입 쿼터 유지에 의한 생산 대수 제한 위기 극복 필요

▣ 자동차 산업에서의 협력 모멘텀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 기대

- 자동차 산업에서의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통한 K-브랜드 제품의 약진은 삼성 스마트폰 현지 제조 협력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
 - ADP 2016~21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핸드폰 제조 산업에도 적용하기 위해 파키스탄 산업생산부는 2020년 5월 Mobile Device Manufacturing Policy*을 발표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경제 위기 가중 속 정권 교체 및 2024년 총선 예정
- ※ 과도 임시정부 하에서의 각종 개혁 정책 추진
-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기업과의 협력 기회 증가
- ※ 정부의 경제개혁 성과 창출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총력

가. 정치 환경

▣ 경제 위기 가중 속 정권 교체 및 2024년 총선 예정으로 불확실성 고조

- 2022년 4월 10일 파키스탄 의회는 전 집권 여당 총리 임란 칸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총 342명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인 174명의 찬성으로 가결함
 - 파키스탄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현직 총리 불신임 퇴진 사례로 기록
 - 유가, 곡물가, 원부자재가 상승에 의한 파키스탄 물가 급등에 국민 신뢰 상실
- 2022년 4월 20일 샤바즈 샤리프 전 편집주 총리를 신임 총리로 신정부 수립
 - 집권 정당인 PML-N은 PPP 등 소수 정당과 연합해 177석의 불안정한 과반 유지
- 2022년 7월 실시된 최대 인구의 전통적인 PML-N 지지층 밀집지역인 편집주 지방선거에서 전임 임란 칸 총리의 PTI가 승리하는 등 정국 불안정 지속
 - 신정부는 외환보유고 고갈에 따른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유류보조금 폐지 등 민심 이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IMF와의 금융 구제 이행조건에 동의함
- 2023년 8월부터 전 정부의 임기가 만료되어 과도정부(수반 카카)가 들어섰으며 헌법상 90일 이내(11월 이내) 새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을 치러야 함
 -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총선은 2024년 1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총선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정치적 혼돈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됨

▣ 과도 임시정부 하에서의 각종 개혁정책 추진

- 2023년 8월부 파키스탄 헌법에 따라 총선 이전까지 중립적인 과도 임시정부 수립됨
 - 임시정부는 선거위원회가 총선을 무사히 치르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에 그침.
그러나 내년 초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중요한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됨
- 과도정부도 IMF 구제금융 조건을 승계하여 이행 중임
 - 구제금융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시정부는 연료와 에너지 가격을 인상 조치함.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 시행
 - * IMF는 2023년 10월, 10억 달러의 두 번째 자금 집행을 위한 1차 평가를 시작할 예정임
 - 중동에서의 광산, 탐사 및 정제 산업에 대한 외국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음
 -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의 밀수를 방지하고 외화의 불법 보유에 대한 단속을 최근 강화하여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킴
 - 방만부실 경영 및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혁정책 추진
 - * 모든 정부 부서와 조직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과 향상 및 전력·항공 등 부실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나. 경제 환경

▣ IMF 구조조정과 러-우 사태 및 대홍수 등 대내외 충격으로 2022/23 회계연도 성장세 대폭 둔화

- (경제성장률) ADB는 파키스탄의 2023/24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2.0%에서 1.9%로 낮춰 전망함
 - 2021/22 회계연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IMF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2022/23 엄격한 외환 및 수입 통제로 건전성 회복함
 - * 2022/23 경상수지 적자는 26억 달러(GDP의 0.7%)로 전년도 175억 달러(GDP 4.7%) 대비 급감
 - 정부 발표 2022/23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5.5%로 전년도 7.9%에 비해 개선됨
- (물가상승률) 2021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023년에 30%를 넘어섬
 - 기상이변과 러-우 사태 지속으로 곡물 및 기본 식료품 공급 교란 및 가격 상승, 2024 회계연도 인플레이션도 20%로 예상됨
 - * 외환 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통화 가치 하락, 수입 제한 조치,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부양책 등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전망

▣ 무역 규모 및 외국인 투자는 감소, 경상적자는 소폭 개선

- 2023년도 대외 수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27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14억 5,500만 달러 기록
 -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전체 투자 유치 금액의 29%를 차지했으며, 통신과 전력 부문이 전체 투자 유입액의 54%를 차지
 - * 중국(4.3억 달러), 일본(1.8억 달러), UAE(1.8억 달러), 스위스(1.3억 달러), 홍콩(1억 달러) 순으로 직접투자가 이뤄짐

- 2022/2023년 파키스탄은 국방비 지출과 채무 상황에 따른 지출로 재정적자가 꾸준히 확대. 대외 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함
 - 국가 재정 및 외환보유고 확보를 IMF와 양자 공여국에 의존해야 함
 - * 2023년 무역적자는 3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강력한 수입 억제로 전년도 175억 달러에서 26억 달러로 대폭 감소함
 - * 주된 외환 공급원인 외국인 송금 규모도 전년 대비 13.6%로 감소한 270억 달러
 - 달러 대비 루피화 환율은 2022년 평균 달러당 200루피 내외에서 2023년 8월 말 300루피 가까이 급격히 상승함
 - * 지난 1년간 현지 통화 28.47% 평가절하 →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촉발
 - * 중앙은행 정책 금리는 2022년 1월 9.75%에서 2023년 10월 현재 22%로 지속 상승

다. 산업 환경

▣ 농축수산업 및 섬유산업 등 주력산업 생산성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 노력 강화

- 정부는 파키스탄의 전통 수출산업인 농수산업과 섬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여 외화 유입 증대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
 - 농업 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경우 농기계, 종자 개발, 가축사료 및 첨가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틈새 수출 기회 확보도 가능
 - * 또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해 식품가공산업에서의 합작투자 기회도 점차 확대 예상

- 파키스탄의 섬유산업은 국가의 제조산업 중 가장 큰 부문으로, GDP의 약 8.5%를 차지. 전체 노동력의 약 40%를 고용하여 약 1,000만 명의 직원을 고용
 - 파키스탄은 섬유제품의 제9대 수출국이며 제5대 면화 생산국
 - *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 EU, 중국, 영국, 방글라데시, 튀르키예, UAE 등이며, 주요 수출 제품은 면사, 면직물, 니트웨어, 침구류, 타월, 데님 직물, 의류

- 따라서 충분한 섬유 원재료 및 완제품 생산력을 확보하고 인도와 같이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생산 등을 지원하여 생산구조의 다변화 필요
- 2021년 발표된 Textile Policy 2020~25 초안에 따르면 수출 증진을 위해 현지 면사 생산량을 2019/20 회계연도 900만 베일에서 2024/25 회계연도 2,000만 베일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섬유업체가 사용하는 전기 및 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5년간 동결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육성을 통한 자동차 시장 활성화 추진

- 2022/23년 파키스탄 경제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2022/23 회계연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제조업 부문 중 하나
 -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해 Automotive Development Policy(ADP) 2016~21*을 발표, 2021년까지 자동차 산업의 GDP 기여도를 3.8%,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늘리는 계획을 이행 중
 - * Automotive Development Policy 2016~2021 : 국내의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무관세 설비 수입, 부품 수입 관세 인하, 로컬 부품-수입산 간의 관세 차별 완화,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
 - ADP 2016~21 정책을 계기로 한국·중국 등 신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현지 조립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스즈키,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 자동차의 시장 독점구조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
 - * 2019년 7월부터 현지에서 조립생산된 KIA 스포티지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으며 20,000대 이상 판매 실적을 거둠
 - 현지 제조(localized)가 이루어지는 부품의 CKD(complete knock-down)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부품 현지화가 향후 경쟁우위의 관건이 될 전망
 - * 2019년 7월부터 스포티지 조립생산을 시작한 기아력키모터스의 경우도 점차적으로 부품현지화율을 높여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자동차 시장 경쟁 심화로 신모델 개발, 부품 국산화, 제조 역량 제고 등을 위한 해외 자동차 부품기업과의 협력 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
 - 세계은행에 따르면 파키스탄 자동차 산업은 중국(90%), 인도(66%)에 비해 낮은 설비 가동률(43%)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부품의 40%를 차지하는 현지 부품 협력사의 취약한 경쟁력과 낮은 GVC 편입 수준에 기인한다고 분석

▣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외 민간 투자의 유입을 촉진

- 전력 부족에 따른 석탄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수력, 풍력, 태양광 등) 발전 프로젝트 수요는 견고하게 유지될 전망
 - 정부는 Alternativ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olicy*를 발표하는 등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0%까지 높이기 위해 노력 중
 - * 선불관세(Upfront Tariff) 제도를 폐지해 경쟁 입찰을 통한 외국인 투자의 유입을 촉진
-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PPI)는 2022년 최저 수준인 1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인도는 118.9억 달러, 방글라데시는 9.1억 달러를 기록
 - PPI는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프라 민간 참여 지표로, 2022년 파키스탄의 PPI는 서남아시아 전체(138억 6,000만 달러)의 0.72% 수준임
 - 특히 전력 송배전 라인*과 풍력발전 투자 중심으로 민간 투자의 유입 증가
 - * The Matiari-Lahore Transmission Line Project는 파키스탄에서 최초로 PPI 방식(외국인 투자 포함)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전력 송배전 라인(Power Transmission Line) 구축 프로젝트임

라. 정책·규제 환경

▣ 정부는 IMF 구조조정과 코로나 경제 위기에도 개혁정책 기조 유지

〈정부의 6대 개혁정책 방향〉

6대 개혁정책 방향	세부 과제
거버넌스 혁신 (Transforming Governance)	- 정치와 관료의 분리, 관료의 독립성 제고 - 정경 유착 단절을 위한 정부기관·국영기업 경영 개선 * 능력과 전문성 기반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중심 운영
연방주의 강화 (Strengthening the Federation)	- 연방 산하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 (FATA, 발루치스탄) - 자치가 필요한 지역은 자치권을 과감히 이양 (Gilgit Baltistan)
경제 성장 (Economic Growth)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 중소기업 지원, ICT 인프라 개선, 수출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섬유산업 등 전통 제조업 육성 강화 (수출 증진 등)
농업 혁신 및 수자원 보존 (Agricultural Reform and Conservation of Water)	- 농업 종사자에 대한 재정 보조 및 대출 지원 확대 - 농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 및 대외협력 강화 * 새로운 품종 개발, 관개수로 개선 등 인프라 개선 포함
사회 서비스 혁신 (Revolutionize Social Services)	-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시스템 개선, 의료보험 수혜 계층 확대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강화
국제안보 위상 강화 (Ensuring National Security)	- 경제발전을 위한 인도, 중국, 미국 등과 유연하고 개방적인 외교 - 국제안보에서의 파키스탄 위상 강화를 위해 외무부 기능 강화

자료: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체 정리

-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신정부는 철도 등 기간산업 운영에서 정부 인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조치할 계획
 - 부실한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SOE)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이고 성과 중심의 전문 경영 시스템 도입 추진
 - * Pakistan Steel Mills(철강), Pakistan International Airlines(항공), K-Electric(전력) 등이 대상
-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
 - 전체 기업의 99%, 산업 고용의 80%(농업 제외), GDP의 40%를 차지하는 320만 중소기업 육성을 강화하고, ICT 분야 수출 지원 강화 및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Digital Pakistan을 통한 고용 창출 노력 강화
 - * 파키스탄의 ICT 수출 규모는 20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인적자원 개발 부족, IT 인프라 미흡 및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 부족에 기인 (Digital Pakistan 2018)
 - * IT 분야 인력을 현재 11만 5,000명에서 100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교육 등) 지원, IT 수출액을 100억 달러로 5배 확대, 5개 테크노 클러스터(SEZ) 구축 등을 적극 추진

〈Digital Pakistan 추진 목표〉

1 Holistic Digital strategy	2 Sectorial Digitalization	3 E/M-Commerce	4 Youth, Women and Girls empowerment using IT
5 Promote Innovation, Entrepreneurship, Incubators/Startups in IT sector	6 Increase software exports, IT remittances & Domestic Market	7 ICT Ranking of Pakistan	8 Digital Inclusion
9 E-Governance	10 Increase foreign and domestic investment	11 Persons with Disabilities	12 Standardization

자료: Ministry of 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MOITT)

-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 외환보유고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가 불가피하며 중-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따른 인프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 파키스탄은 최근 2년 World Bank의 Ease of Doing Business(EODB) 순위가 39계단 상승해 2020년 기준 108위를 기록
 - * 복잡하고 느렸던 정부의 각종 행정절차 및 투자기업을 위한 전력 및 가스 연결 기간도 대폭 개선
 - * 2020년 EODB에서는 Starting Business, Registering Property, Construction Permits, Paying Taxes, Getting Electricities, Trading Across Borders 등의 6개 부문에서 순위가 크게 상승

▣ 정부 및 대기업 중심 탄소 감축 등 ESG 적극 추진

- ESG 태스크포스 설립 : 2021년 파키스탄 기업지배구조 연구소(PICG)와 PSX 국가 ESG 태스크포스 공동 설립
 - ESG 프레임워크, 사회적 실천 및 가치, 좋은 기업 지배구조 구현 목표 설정
-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SECP) :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국가의 자본시장에서 ESG를 적용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ESG 로드맵을 제안
- 국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정책 : 파키스탄 정부는 2021년에 국가 기후변화 정책과 국가 야생동물 정책을 발표, 2020~2023년 국가 에너지 효율 전략 계획과 2020~2025년 국가 전기자동차 정책을 도입
- 파키스탄 증권거래소(PSX)의 ESG 이니셔티브 참여 : 파키스탄 증권거래소는 최근에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으며, 상장기업들에게 ESG 정책을 구축하고 ESG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요구
 - 금융 부문의 대기업과 Engro, Gul Ahmed와 같은 주요 대기업들은 조직 내에서 ESG 정책을 적용하는 데 집중
 - * 물 정화 프로젝트 개선, 여성 지원 및 청정 에너지 등 환경 및 사회적 과제 수행

※ 파키스탄은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거대 잠재시장이나 인프라 미비, 치안 불안이 본격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임. 만성적 쌍둥이 적자와 누적된 대외 부채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음. 2019년 IMF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속화되는 정부의 경제혁신 노력은 그간 정체되었던 한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업그레이드와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 시장 특성

▣ 서남아 제2의 거대 잠재시장

-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미개척 신흥시장
 - 파키스탄은 인구 2억 3,000만 명이 넘는 세계 5위 인구대국으로서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8~29세 청년층 인구 비중이 전체의 30%를 상회
 - * 2019년 MSCI는 파키스탄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존의 'Emerging Market' 지위를 유지
 - 한반도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에 천연가스, 석탄, 구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잠재적 협력 유망시장
- 인프라 투자 및 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프로젝트 시장
 - 정부는 전력 부족 완전 해소를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수력발전소 증설을 적극 추진 중이며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증가
 - 중-파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 지속, 저소득층 주택 500만 호 건설 등 다양한 기회요인으로 건설기계, 건축자재 등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
- 철저한 가격 위주의 시장, 그러나 점차 품질에 대한 인식도 증가
 - 파키스탄에서는 품질보다 가격 자체가 구매결정의 핵심 기준
 - 2007년 7월 중국-파키스탄 FTA 발효 후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 중국 제품이 현지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왔으나, 중국산 제품의 품질과 A/S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품질에 대한 인식도 점차 증가
- 치안 불안은 상존하나 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
 - 상시 정정 불안, 종교 갈등으로 탈레반 등 무장 세력의 테러가 지속 발생

- 그러나 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 주요 시장을 잇는 교두보 지역으로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테러 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등 정세가 안정화되는 추세
- 코로나19에 따른 GVC 재편에 따라 저임금 국가이자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수출 교두보로서의 파키스탄의 위상 강화

나. 교역

▣ 교역 동향

- 2022/23 회계연도 파키스탄의 교역 규모는 793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2% 대폭 감소했으며 수입 감소가 수출 감소보다 교역 규모 감소를 주도
 - 대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한 279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대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한 514억 5,200만 달러를 기록
-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40.7% 감소한 235억 4,900만 달러를 기록, 2020/21 회계연도에 역대 최대인 442억 달러를 기록 후 2년 연속 감소세로 전환
 - * 2023년 상반기에는 IMF 구제금융 관리 체제 하에도 불구하고 대외부채 디폴트 위기 증가

〈파키스탄 대외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수출액	24,257	22,536	25,639	32,467	27,903
수입액	51,869	43,645	54,273	72,043	51,452
교역 규모	76,126	66,181	79,912	104,510	79,355
무역수지	-27,612	-21,109	-28,634	-39,576	-23,549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 품목별 동향

- (수출) 2022/23 회계연도 기준, 상위 10대 수출 품목이 대부분 전년 대비 수출 감소를 기록함. 최대 수출 품목인 기타섬유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한 약 49억 달러를 기록
 - 편물의류(6.9%), 비편물의류(5.3%), 면(13.9%) 등 섬유제품 및 곡물(22.7%), 동제품(30.7%) 등 기타 주력 품목들도 모두 수출 감소. 음료(4.8%) 및 생선류(14.2%)는 수출 증가

〈주요 품목별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21	2021/22	2022/23	증가율
1. 기타섬유제품	4,658	5,693	4,965	△12.9
2. 의류(편물)	3,599	4,842	4,513	△6.9
3. 의류(비편물)	2,771	3,665	3,472	△5.3
4. 면·면사면직물	2,852	3,593	3,097	△13.9
5. 곡물	2,227	2,993	2,323	△22.7
6. 가죽제품	656	747	714	△4.4
7. 동·제품	559	839	581	△30.7
8. 음료·주류·식초	331	503	527	4.8
9. 광학·측정·의료기기	475	501	474	△5.3
10. 생선 및 갑각류	406	411	469	14.2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HS 2단위 기준)

- (수입) 2022/23 회계연도 기준 주요 품목 수입액도 큰 폭으로 감소
 - 생필품인 동식물성 유지(7.0%) 및 곡물류(35.3%)만 전년 대비 수입 증가를 보였고 에너지(11.7%), 유기화학물(17.5%), 철강(46.1%), 전기기기(58.2%) 등 산업용 중간재 및 원자재 등이 전반적으로 수입 감소 기록함

〈주요 품목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21	2021/22	2022/23	증가율
1. 광물성연료-에너지	11,251	21,029	18,571	△11.7
2. 동식물성유지	2,610	3,527	3,775	7.0
3. 면·면사·면직물	2,493	2,949	2,742	△7.0
4. 유기화학물	2,444	3,239	2,674	△17.5
5. 철강	3,512	4,597	2,476	△46.1
6. 보일러·기계류	3,709	5,041	2,432	△51.8
7. 플라스틱·제품	2,460	3,251	2,196	△32.4
8. 전기기기·TV·VTR	4,418	4,358	1,820	△58.2
9. 곡물	1,018	892	1,206	35.3
10. 종자 및 과일	1,607	1,489	1,145	△23.1
11. 일반차량	2,168	3,045	1,077	△64.6
12. 각종화학공업생산물	838	931	785	△15.7
13. 인조필라멘트섬유	767	979	644	△34.2
14. 인조스테이플섬유	814	943	642	△31.8
15. 기타	1,603	2,005	508	△74.7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HS 2단위 기준)

▣ 경쟁 동향

- 2022/23 회계연도 파키스탄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7.3%), 영국(7.0%), 독일(5.7%), 네덜란드(5.2%) 순이며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출의 약 47%를 차지 (한국은 0.7%)

〈주요 국가별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20/21	2021/22	2022/2023	증가율	비중
미국	5,031	6,799	5,929	△12.9	21.2
중국	2,044	2,781	2,029	△27.1	7.3
영국	2,048	2,200	1,966	△10.7	7.0
독일	1,488	1,843	1,600	△8.6	5.7
네덜란드	1,118	1,487	1,447	△3.5	5.2
스페인	802	1,149	1,374	19.4	4.9
아랍에미리트	1,142	1,598	1,328	△16.9	4.8
이탈리아	775	1,086	1,151	5.9	4.1
방글라데시	616	871	769	△11.9	2.8
벨기에	584	717	700	△2.3	2.5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 2022/23 회계연도 파키스탄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UAE(10.4%), 카타르(7.3%) 사우디아라비아(6.4%), 싱가포르(5.3%) 순으로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의 약 48%를 차지
 - 한국이 2022/23년에 10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함(1.6%)
 - 전년 대비 41% 증가한 카타르 및 쿠웨이트(10.5%)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주요 국가별 수입액이 큰 폭으로 하락

〈주요 국가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20/21	2021/22	2022/23	증가율	비중
중국	13,301	17,301	9,662	△44.2	18.6
아랍에미리트	5,309	6,625	5,382	△18.8	10.4
카타르	1,325	2,687	3,788	41.0	7.3
사우디	2,390	4,231	3,324	△21.4	6.4
싱가포르	3,117	3,411	2,763	△19.0	5.3
인도네시아	1,313	2,676	2,644	△1.2	5.1
쿠웨이트	1,355	2,304	2,546	10.5	4.9
미국	2,447	3,055	2,215	△27.5	4.3
일본	1,498	1,986	889	△55.2	1.7
한국	1,313	1,541	808	△47.6	1.6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 수입 규제 동향

- 2023년 상반기 기준 對韓 수입 규제는 전체 8건으로, 화학 5건, 철강/금속 1건, 플라스틱/고무 1건 및 기타 1건으로 전년과 동일

〈파키스탄의 對韓 수입 규제 현황〉

연번	품목분류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1	철강/금속	냉간압연 코일/시트 (Cold Rolled Coils/Sheets)	7209.15.10/90, 7209.16.10/90, 7209.17.10, 7209.18.10/91/99 7209.25.10/90, 7209.26.10/90, 7209.27.10/90, 7209.28.10/90	반덤핑	'21.2.25	'2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2.25 : 반덤핑 조사 개시 ○ '21.8.23 : 예비 판정, 4개월간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 : 13.24% * 수출용 중간재 또는 파키스탄 정부에서 승인하는 산업용 중간재는 미적용 ○ 최종 판정 : '22.2.3 * 부과기간 : '21.8.23~'26.8.22
2	화학	황색무기크롬 안료 (Inorganic Yellow Chrome Pigment)	3206.20.10	반덤핑	'20.2.29	'20.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9 : 반덤핑 조사 개시 ○ '20.8.25 : 예비 판정 * 한국 : 26.59% ○ '20.12.17 : 최종 판정 * 한국 : 26.59%(~'21.6.30), 41.59% ('21.7.1~) * 부과기간 : '20.8.25~'25.8.24
3	화학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2917.35.00	반덤핑	'19.12.7	'2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2.7 : 반덤핑 조사 개시 ○ '20.6.5 : 예비 판정 * 예비 판정 단계 관세는 미부과 ○ '21.6.5 : 최종 판정 * 한국 : 14.82%(한화솔루션 : 9.57%) * 부과기간 : '21.6.5~'26.6.4
4	플라스틱/ 고무	폴리염화비닐 수지 (PVC; Polyvinyl chloride Resin)	3904.10.90	반덤핑	'16.11.29	'18.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1.29 : 반덤핑 조사 개시 ○ '17.6.13 : 예비 판정 * 한국 : 11.18% ○ '18.4.25 : 최종 판정 * LG화학 4.0%, 기타 14.97% * 부과기간 : '17.6.13~'22.6.12
5	화학	술폰산 (Sulphonic Acid)	3402.11.00	반덤핑	'16.11.28	'18.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1.28 : 반덤핑 조사 개시 ○ '17.5.25 : 예비 판정 * 한국 : 31.26% ○ '18.1.27 : 최종 판정 * 한국 : 21.59% * 부과기간 : '17.5.25~'22.5.24
6	기타	백판지 (One Side Coated Duplex Board-Grey Back)	4810.92.00, 4810.99.00	반덤핑	'16.1.30	'17.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30 : 반덤핑 조사 개시 ○ '17.5.12 : 예비 판정 * 한국 : 14.98% ○ '17.7.29 : 최종 판정 * 한국 : 14.98% * 부과기간 : '17.5.12~'22.5.11

연번	품목분류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7	화학	오프셋 프린팅 잉크 (Offest Printing Ink)	3215.11.10/90, 3215.19.10/90	반덤핑	'15.12.7	'2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2.7 : 조사 개시 ○ '17.7.21 : 조사 종료 발표 * '17.7.14 : 미부과 최종 판정 ○ '17.8.31 : 제소자 이의 제기 (항소) ○ '22.2.22 : 제소자 항소심 승소 (원심 파기환송 결정) ○ '22.4.7 : 반덤핑 재산정/부과 결정 * 부과기간 : '22.4.7~'22.7.20 * 한국 2.16~12.88%, 중국 16.67~17.92%
8	화학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09.8.31	<최종> '11.7.6 <일몰> '21.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8.31 : 반덤핑 조사 개시 ○ '10.9.27 : 예비 판정 * 한국 : 에보닉 14.77%, 한솔 0.58%, OCI 1.28% ○ '11.7.6 : 최종 판정 * 한국 : 에보닉 14.77% ○ '10.9.27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부과 * 덤핑 마진율이 2% 이하로 판정된 3개 사는 미부과(OCI 계열 2개 사, 한솔) ○ '15.9.2 : 일몰 재심 개시 ○ '17.1.23 : 일몰 재심 종료, 관세 부과기간 연장 * '15.9.2 기준 5년 연장 ○ '20.8.28 : 2차 일몰 재심 개시 ○ '21.8.26 : 2차 일몰 재심 종료, 관세 부과기간 연장 * '20.9.2 기준 5년 연장

다. 투자

▣ 투자 동향

- 국가별 對파키스탄 투자 현황
 -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 규모는 2022/23 회계연도 기준 14억 5,5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감소
 - 중국은 2019/20 회계연도 최대 투자 후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이 2년 만에 다시 파키스탄 투자를 하였음. 미국은 최근 4년간 꾸준히 투자를 증액해오다 2022/23년에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함. 한국은 최근 5년간 파키스탄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

〈주요 국가별 對파키스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023
중국	130.8	846.6	751.6	531.6	432
일본	117.3	52.5	-13	-12.3	183
UAE	103.7	-44	115.7	143.9	180
기타	343	1,076.20	350.7	500.7	173
스위스	21.2	62.8	61.7	146.2	134
홍콩	171	190.7	157.2	137.7	101
미국	88.1	99.2	166.4	249.6	89
네덜란드	69	133.2	96.9	104.1	72
영국	185	119.1	141	31.8	65
튀르키예	73.8	26.1	13.4	-0.3	18
이탈리아	51.9	57.4	36.3	34.8	9
합계	1,362.4	2,597.5	1,820.5	1,867.80	1,455.80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Board of Investment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 ※ EU,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선진 시장
- ※ 가치 지향의 소비자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장
- ※ 에너지 가격 안정세로 '23년 EU 대외 무역 적자폭 완화세이나 EU FDI 투자액은 '19년 이후 저조한 흐름 지속 중
- ※ '23.8월 누계 기준 對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4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경기 둔화에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선전

가. 교역

▣ 한국과의 무역 동향

- 2022년 한-파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10.0% 감소한 16억 8,600만 달러로 파키스탄 경제 위기에 따른 수입 억제 정책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결과임
 - 2023년 상반기에도 파키스탄 외환위기 지속으로 7월 기준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

〈한-파키스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무역 규모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3(7월)	673	514	-37.6	159	-50	355
2022	1,686	1,199	-22.4	487	48.4	712
2021	1,874	1,546	44.0	328	45.1	1,218
2020	1,299	1,073	28.9	226	-46.0	847
2019	1,252	833	-18.2	419	10.2	414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23년 8월 기준, 對파키스탄 주요 수출품의 수출 금액이 대부분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부품은 파키스탄 정부의 수입 제한 조치로 수출액 60% 이상 대폭 감소 기록
 - ※ 10대 수출품 중 농약과 알루미늄 품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수출액 신장 기록

〈對파키스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번	MTI	품목명	2022년		2023년(8월)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411	승용차	175	-22	65	-58
2	2140	합성수지	105	-13	63	-22
3	1336	윤활유	104	-7	61	-22
4	2261	농약	44	62	53	48
5	7420	자동차부품	137	-51	44	-62
6	2211	염료	60	-26	36	-20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52	-11	25	-34
8	2262	의약품	37	47	21	-13
9	6212	알루미늄조각공품	20	34	20	66
1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0	-17	12	-21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23년 8월 기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은 나프타(-75.4%), 편직제의류(-16.7%), 면사(-54.5%) 등 대부분 품목 수입금액 감소
 - 다만 기타비금속광물(18.5%), 수산물 수입은 계(50.3%), 어육(54.6%) 등 꾸준히 증가
 - 파키스탄 소금도 한국의 20대 수입 품목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200만 달러 기록

〈對파키스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번	MTI	품목명	2022년		2023년(8월)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1	1334	나프타	228	74	41	-75
2	4411	편직제의류	46	76	26	-17
3	4331	순면직물	33	-17	18	-12
4	1290	기타비금속광물	17	-12	15	19
5	4213	면사	29	13	9	-55
6	0422	계	6	16	9	50
7	4412	직물제의류	12	41	8	3
8	0451	어육	5	-8	6	55
9	5141	운동기구	5	5	5	31
10	0157	주류	12	704	3	-68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 기업 수출 성공 및 실패 사례

- 수출 성공 사례 : M사 (품목: 자동차부품)
 - 기아와 현대자동차는 2017년부터 파키스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체 자본 투자 없이 반조립(Complete Knock Down, 이하 CKD) 공장 설립을 추진
 - 그러나 M사는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에 대한 현지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진출 방향과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 M사는 KOTRA 카라치 무역관에서 개최한 한-파키스탄 오토파트 콜라보 사업에 2년 연속 참여(2018, 2019)하면서 기아 및 현대자동차의 현지 제조 파트너사인 KLM 및 HNM사는 물론 현지 유력 벤더 기업들과 미팅 진행
 - 2019년 한-파키스탄 오토파트 콜라보 사업에서는 HNM사의 현지 1차 벤더인 SanPak사와 AV 시스템 공급 및 개발 협력 MOU를 체결
 - 이후 카라치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도 참여하며 파키스탄 시장 진출 계획 구체화하였고, 그 결과 2019년 12월부터 KLM에 AV 시스템을 계속 수출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말까지 수출액은 약 300만 달러 수준
 - M사는 향후 우리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 될수록 수출 성과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지 OEM의 부품 국산화를 위한 현지 벤더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 등도 고려하면서 계속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

- 수출 실패 사례 : B사 (품목: LED)
 - 코트라 해외 진출 토털 패키지(2017.9.22~2018.3.21)에 참가하여 파키스탄 주요 7개 도시 LED 공공조달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 추진
 - 현지 출장도 시행하면서 시정부의 조달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행
 - 신규 개발되는 B타운 공공조달 프로젝트(2만 5,000개) 입찰에 참여. 참여기업 9개 사 중에 2개 사 제품이 낙찰되었으나, B사는 선정되지 못함
 - 타깃 조달시장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낙찰 유력 가격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였으나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현지 조달시장의 특성상 만족스러운 가격을 제시하지 못해 낙찰에 실패
 - 파키스탄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다소 마진이 작더라도 초기에는 품질과 이미지를 명확히 인식시킨 후, 구매 고객층이 형성되었을 때 정상적인 마진 가격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임
 - 이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격 전략과 제품 개발계획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

나. 투자 진출

▣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동향

- 2023년 기준 2018년 이후 對파키스탄 직접투자금액 누계는 1억 7,400만 달러임
 ※ 제조업(5건), 공공서비스(6건), 건설업·전기통신업·도소매·기술서비스(각 1건)에서 신규 법인 설립

〈우리 기업의 對파키스탄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구분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
2018	4	75
2019	6	47
2020	0	39
2021	4	4
2022	1	9
2023	0	2
합계	15	17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기업의 對파키스탄 투자는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이전(2011/12~2014/15 회계연도)에는 연평균 2,5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4/15년 회계연도 이후 급격히 줄면서 2022년에는 100만 달러 미만으로 감소
 - 2018년에는 롯데칠성음료가 현지 음료기업인 리아즈 보틀러스(Riaz Bottlers)의 사업 분할합병을 통해 설립된 합작법인 롯데 악타르 베버리지(Lotte Akhtar Beverage)의 지분 52%를 약 580억 원에 인수하면서 투자액이 일시적으로 증가
 - 2019년에는 (주)금양 발포제 생산 공장을 카라치에 소재한 빈 카심 SEZ에 설립하기 위한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 다만 최근 3년간 제조업 진출은 더 이상 전무
 - *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원가 절감 및 근거리를 활용한 중동·아프리카 시장 확대가 목적
- 투자 진출 진입장벽
 - 열악한 현지 전력 사정, 외환위기, 테러 발생 등 불안한 경제·치안 여건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파키스탄 진출은 아직까지 부진한 상황

- 현지에서 활동 중인 투자 진출 기업은 총 24개이나 발전 프로젝트 건설업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 롯데콜슨, 대우버스 등 소수의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
- 국내 기업의 투자 진출 시 파키스탄 정부가 약속했던 인센티브 혜택(법인세 및 일반판매세 환급 등) 이행이 지연되면서 기업 경영 애로를 야기

▣ 우리 기업 투자 성공 및 실패 사례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성공 사례
 - L사는 주력산업인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화학섬유의 원료) 사업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중 세계 최대의 코팅 생산업체 A사가 파키스탄 PTA 사업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됨
 - 파키스탄 내 유일한 생산업체로 관세 및 운송료 등의 비용에서 수입산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가진다는 점, 섬유산업의 성장이 9~10%로 견실한 점, 중동 지역에서 석유화학원료 확보가 유리한 점, 아울러 PTA 생산이 부족한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수출에서 유리한 지리적 위치 등 기회요소를 확인하면서 향후의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마련해나감
 -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8년 11월 Non-binding offer를 제출하고 10개월 만인 2009년 9월 A사와 지분인수 계약을 마무리함
 - 2022년 현지 사업체 매각 결정, 철수 예정임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실패 사례 (J사, 자동차용 단조 부품)
 - 파키스탄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로 2004년에 설립
 - 현지 기업은 공장 부지와 건물 투자, 국내 기업은 설비를 투자
 - 설립 초기 수출주도형 기업으로서 생산품의 70%를 수출하였으나, 현지 파트너사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신규 투자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2010년 투자했던 설비를 매각하며 철수

다. 주요 경험 의제

▣ 한-파키스탄 FTA 협상 추진 노력 계속

-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로 FTA 체결 시 양국 교역 확대 가능
 - * 양국 간 산업구조 차이에 따라 對파키스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합성수지, 윤활유, 의약품, 기계류, 철강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섬유류, 농식품임
 -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전에는 한국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3%를 상회 하였으나, 이후 치안 불안, 중-파 FTA, 중-파 경제회랑(CPEC)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반등
 - * 한국은 2022/2023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10위 수입국으로서 1.6%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중국(1위)은 18.6%, 일본은 1.7%로 한국보다 우위
 - 특히 중국은 2007년 중-파 FTA 발효 이후 중국 제품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현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왔음
- 한-파 FTA 공동 타당성 조사 완료, 협상 개시는 미지수
 - 2015년 7월 파키스탄 상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제1차 한-파키스탄 무역투자 공동위원회 개최, FTA 민간 공동 연구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파키스탄무역개발원(PITAD) 간 한-파 FTA 공동 타당성조사 진행
 - 2015년 10월 UN 총회 시 양자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파키스탄 FTA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2017년 1월 FTA 민간 공동 연구 완료
 - 2017년 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제2차 한-파 무역투자공동위를 개최, 한-파 FTA 민간 공동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FTA 추진 방향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
 - 2019.8월 라자 다우드 상무장관의 산업부 장관 면담 시 파키스탄 경제혁신을 위한 한국과의 무역 자유화 확대*를 논의
 - * 한-파 FTA Early Harvest 계획(20~30개 품목 우선 무역 자유화) 등을 논의

▣ 한국 기업의 파키스탄 투자 진출 및 현지 기업과의 기술협력 확대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외환보유고 확대
 - 만성적 외화 부족, 제조업 및 수출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신정부는 특별경제구역(SEZ) 확대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추진
 - * CPEC에 따른 인프라 개선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요
 -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부족, 제조업 육성 경험 부재, 행정 비효율 등으로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애로 존재

- 글로벌 GVC 재편에 따른 파키스탄 시장의 새로운 전략적 위상 부각
 - 미-중 신냉전과 러-우 사태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글로벌 경제의 분산화 및 GVC 재편, 정부의 정책 지원 등에 따라 전략적 저임금 대체 수출기지로서의 파키스탄 시장에 대한 관심 확대
 - 파키스탄 정부는 전기자동차 육성정책, 핸드폰 제조산업 육성정책, 국가관세정책 (National Tariff Policy) 등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한국 기업(스마트폰 제조기업 유치, 수출 기지화)의 파키스탄 투자 진출 확대를 유도

파키스탄 「국가관세정책 5개년 계획(National Tariff Policy 2019~24)」 내용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 합리화를 위해 2019년 11월 National Tariff Policy 5개년 계획 발표
- 원자재,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일반관세 및 규제 관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
- 필수 원자재, 중간재 품목들에 대한 기업들의 투입비용을 감소 → 제조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국가관세정책의 4가지 주요 목적
 - ① 관세 제도를 세수 창출원이 아닌,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을 추진
 - ② 계단식 관세 구조(0%, 3%, 11% 등)를 적용해 일관성 있는 관세 부과가 가능토록 조치
 - ③ 관세 합리화를 적용하기 전에 국내 유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 기간의 보호 기간 (infant phase)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phase-out) 해제
 - ④ 보호 기간 중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현지 생산으로 대체
- 2020년 7월 1일부로 시작되는 2020/21 회계연도부터 향후 5년간 구체화 과정을 거칠 전망
 - 2020/21 회계연도부터 약 1,600개 품목에 대한 관세(규제관세 포함) 인하 적용(상무부)
 - 품목 수 HS Code 분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 인하 내용은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 Finance Act 2020(<https://www.fbr.gov.pk/Categ/Finance-Acts/620>)에서 확인

▣ 상호 호혜적 통상 및 경험 공유(KSP) 협력 추진

- Make in Pakistan 활성화 수요를 소부장 수출 및 기술협력으로 연결
 - 파키스탄 산업 정책의 니즈에 맞추어 Value Chain상 파키스탄과 한국 기업 간의 강점을 결합한 수요맞춤형 상호 호혜적 통상협력 가능
 - 자동차부품 국산화, 건설 경기 부양, 보건의료 예산 증액, 전기차 보급 등 정책 기회와 연계한 산업·기술협력 수요 공략
- 산업 투자 KSP 사업을 활용한 양국 기업 간 협력 강화 기반 조성
 - 파키스탄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 육성 경험을 전수하는 프로그램 개발
 - 산업 한류(韓流)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 간의 협력(기술 이전, 인증제도 전수 등)이 용이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KSP 사업 추진 확대

Chapter



진출전략



〈인구 2.3억 명의 거대 내수시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미개척 신흥시장〉

2023년 파키스탄 진출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은 경제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 수출을 넘어서 현지 기업·정부와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임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p>경제 위기와 정권 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4월10일 임란칸 총리 불신임 가결 • 2022년 4월 20일 샤리프 신임 총리 취임 • 2023년 8월 과도정부 수립 및 2024년 총선 예정 <p>과도 임시정부의 개혁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8월 과도 임시정부 수립 • IMF 구제금융 조건 이행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조치 및 외환시장 안정화
E 경제 (Economic)	<p>대내외 실물경제 충격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B 2023/24 경제성장률 1.9% 전망 •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로 건전성 다소 회복 • 2023년 물가상승률 30% 기록 <p>무역 및 외국인 투자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대외 수출 11% 감소, 외국인 직접투자 22% 감소 • 중국 투자 유입 감소, 통신 및 전력 부문 투자 증가
S 사회문화 (Social)	<p>농축수산업 및 섬유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업 및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섬유산업의 부가가치 제품 생산 지원 <p>자동차 및 부품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산업의 GDP 기여도 증가 • 외국 브랜드의 현지 조립생산 확대 • 부품 현지화 필요성 강조 <p>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부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 민간 투자 감소, 전력 송배전 라인 프로젝트 추진
T 기술 (Technological)	<p>IMF 구조조정 및 개혁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혁신, 연방주의 강화, 경제성장, 사회복지 제고 등 6대 개혁정책 방향

〈파키스탄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 영어 구사 인력 채용 용이 • 에너지·인프라 건설 투자 지속 •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접근성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부족 등 열악한 비즈니스 인프라 • 경제 불안 및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 인력 해외 유출로 인한 고급 인재 부족 • 치안, 위생, 환경 등 어려운 생활환경
기 회(Opportunity)	위 험(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e in Pakistan 활성화 노력 강화 • 한국제품 품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 코로나 경기 부양, 경제개혁 추진 의지 확고 • 코로나19 GVC 재편으로 전략적 위상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분쟁 지속, 테러 및 치안 불안 • 중국제품 유입 가속화로 시장 질서 교란 • 총선 지연에 따른 과도정부 정정 불안 • IMF·홍수 이중 위기로 불확실성 여전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경기 부양 맞춤형 융복합 진출 확대 • 글로벌 GVC 재편 기회 활용 파트너십 구축 	상생협력형 B2B 사업 개발 강화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제품과 차별화된 비대면 마케팅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신규 진출 유망 품목 발굴 	틈새 수출 유망 품목 발굴·지원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e in Pakistan 관련 기회 편승 •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산업 집중 공략 	경제혁신 지원 협력의제 선점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반사적 기회 발굴 • 경제협력 K-패키지 아젠다 지속 발굴 	동반성장형 경제협력 강화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구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IMF 경제개혁과 신정부 출범	<p>❶ IMF 경제개혁과 신정부 출범 경제 육성 정책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SEZ 육성)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 의료제약, IT통신, 전기차 플랫폼 구축 등 新 유망 품목 발굴
프리미엄으로 중상류층 소비시장 공략	<p>❷ 중국 제품과 차별화된 K-프리미엄 마케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제품 전문 수입기업과의 플랫폼 협력 확대 ○ 프리미엄 소비자 타겟, 대형 유통망 공략 확대
GVC 재편 및 현지화 수요 기회 포착	<p>❸ Make in Pakistan 확대를 소부장 협력 강화로 연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진출방식 다변화(수출 중심 → 융복합) ○ 현지 자동차 부품기업과의 기술제휴 등 상생협력 파트너십 지원 확대
디지털·고부가가치 경제 전환 움직임에 주목	<p>❹ IT 및 의료제약 등 미개척 新시장 진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움직임 포착, IT 서비스 협력 강화 ○ 의료기기 및 제약, 전기차 플랫폼 등 고부가가치 사업 기회 발굴
개도국 원조 및 CSR 기반 기업 협력 강화	<p>❺ 경험 공유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개발청(SMEDA), 한국 전문가 그룹 간 협력 플랫폼 구축 ○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로 그린경제 전환

IMF 경제개혁과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육성 정책을 기회로 활용,
한-파키스탄 공동 번영 확대

3-1. IMF 경제개혁과 신정부 출범 경제 육성 정책 활용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구호 지원, 금리 인하, 산업 육성, 정책금융 지원 등의 신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추진
 - * IMF 구조조정으로 제한되었던 확장 정책·통화 정책으로의 일시적 전환이 가능
 - * 보건의로 부문 예산 확대, 건설시장 활성화, 면방직 및 IT 서비스 등 수출산업 육성
- 새로운 파키스탄(Naya Pakistan) 건설을 위한 경제개혁 조치 지속
 - *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 진출 기회로 활용
 - *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정부 지출이 확대되는 분야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추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회생을 위한 전방위 노력 강화
 - IMF 구조조정 중에 러-우 사태 및 공급망 교란이 가중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확대
 - * 2023년 파키스탄 경제는 유례없는 3중고(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경험, 국가 부도 위기 직전에 몰림
 - 2024년 상반기 총선 이전 표심을 잡기 위한 각종 개혁정책 추진 중
 - * 내년 총선과 그에 따른 정치 불안은 경제 안정, 신뢰 회복, 부채 문제 해결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 전망
 - 경제개혁 추진과 순조로운 총선 시행 시 경제 불확실성 제거, 재정 긴축이 공공 소비를 억제함에 따라 수입 규제 완화로 투자 증가 예상됨
 - * 재정 건전화, 통화 긴축, 시장환율, 에너지 및 국영 기업 구조개혁 추진 탄력 예상됨
- 2022 대홍수 피해 및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 지난해 대홍수로 전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고 주택 200만 가구 소실
 - * 피해 복구에 20억 달러 소요되며 국제사회로부터 7억 달러 지원 확보
 -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엘니뇨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감축 노력과 인식 제고
 - * 파키스탄은 2030년까지 BAU 대비 20% 감축 목표 제시, 신재생 발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의지 표명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정부가 전략적으로 부양 및 육성하는 분야에서의 진출 기회 모색
 - ICT 및 교육 인프라 개선, 섬유·농수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대홍수 피해 복구 재건사업, 온실가스 감축, 보건의로 관련 사회 지출 강화 등에서 파생되는 기회에 주목
 - * (유망 분야) IT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수주, 섬유 기계 및 원료 수출, 농수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인프라 개선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시공 서비스, 보안 및 안전장비 수출 등

- 2022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 설립
 - * 민간-군사 주도로 다양한 부처의 성과 검토, 투자자와 정부 부서 간의 분쟁 해결, 가스 할당, 급수 계획, 순환 부채의 정산 및 석유 밀수 억제, 국영공항 민영화 등 전방위 애로 해결 노력
-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 활용
 - 경기 부양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수입대체산업 육성, 제조산업(특히 자동차 분야) 현지화 등에 관심이 많아 단순 수출 확대보다는 현지 기업과 제휴를 통한 상생전략 필요
 - * (유망 분야) 제조 역량 개선, 기술 향상, 설비 개선 등의 분야 기술 이전 제휴, 합작투자 등

홍수 피해 이재민을 위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과 진출 기회

- 2022년 대홍수 피해 주거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신정부 출범 전부터 적극 추진 중(총 사업비는 20억 8,000만 달러)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연방 및 주 정부, 기타 다국적 기부 기관의 지원 전폭 지원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분야에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해외 사례 적극 벤치마킹 전망
⇒ 우수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태양광, 풍력 활용 저비용 주택 건설, 공중보건(화장실 설치 등), 친환경 건설자재 활용 해외 건설 기업에게 진출 기회
- 향후 보건의료, 교육 시스템 관련 분야도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예정으로 국제기구 ODA 및 EDCF 차관 활용 진출 유망

3-2. 중국 제품과 차별화된 K-프리미엄 마케팅 강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파키스탄 FTA 2단계 협정 등으로 저가의 중국 제품의 현지 시장 공략 확대
 - * 단, '18년 기준 전체 3,221만 가구 중 약 9%가 자차를 소유한 중산층 가구로 가치구매 소비자도 다대
- 인터넷 브로드밴드 보급률 개선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전자상거래 시장 지속 성장
 - * Euromonitor International은 2016~21년 소매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1위 파키스탄(8.2%), 2위 카메룬(7.4%), 3위 한국(5.8%), 4위 인도(5.3%) 등을 선정(자료: Bloomberg)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국-파키스탄 FTA 2단계 협상 발효로 중국 제품의 시장 접근 확대
 - 파키스탄은 15년에 걸쳐 총 5,237개의 중국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부여
 - * 5,237개의 품목은 2016/17 회계연도 기준 對중국 전체 수입액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부로 對중국 수입 제품 3,146개에 대해 즉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후 15년에 걸쳐 2,091개 품목에 대해 추가 무관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
-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제품의 파키스탄 시장 점유는 계속 확대될 전망
- 그러나 현지 업계에서 중국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품질의 이미지가 좋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 * 한국 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높은 관세, 세금 부과는 초기 진입 시 애로로 작용
- 인구 2억 3,000만 명 거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파키스탄 유통시장은 꾸준한 성장세
 - 파키스탄 유통시장 규모는 매년 8% 내외의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
 - 오프라인 유통망은 전통적으로 250만 개의 소규모 매장을 중심으로 분산된 구조로 운영되어왔으나 점차 대형화, 통합화, 가치구매의 추세가 확산
 - * 다양한 제품에 대한 원스톱(one-stop) 쇼핑이 가능한 대규모 도소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망 매출 규모가 연평균 8% 이상 성장(300억 달러 이상)할 것으로 전망 ⇒ 규모가 작은 소매장 수는 점차 감소하고 '가치구매' 트렌드 확산
 - 파키스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22/2023 회계연도에 64억 달러를 상회, 연평균 6.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파키스탄 경제개발연구소, PIDE)
 - * 2018년 6,100만 명에 불과했던 광대역 사용자 수가 2023년 9월 기준 1억 3,000만명 으로 5년 사이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터넷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는 추세 (접속률 54.48%)
 - * 온라인 쇼핑 결제의 85% 이상이 Cash on Delivery(COD) 방식이나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81%로 급속 확대 (2023년 6월 기준 인터넷 बैं킹 및 모바일 बैं킹 총 이용자 수는 2,5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

중국 알리바바(Alibaba)의 파키스탄 진출 확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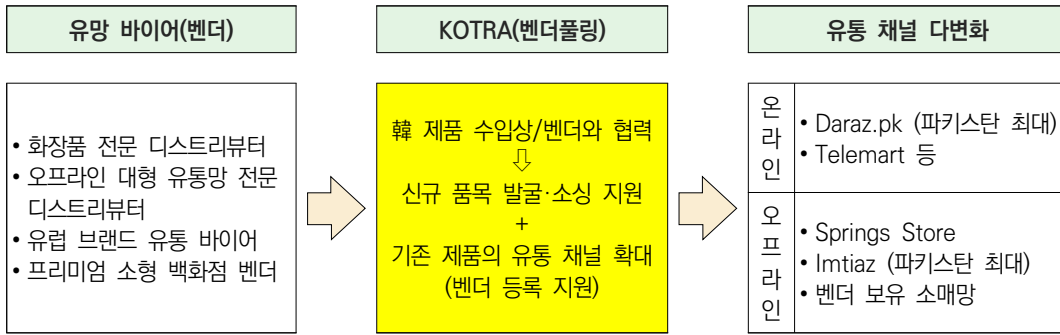
- 2018년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파키스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Daraz.pk사를 인수하는 등 알리바바는 인도 이외의 서남아 대안시장을 발 빠르게 공략 중
- 알리바바는 2017년 모바일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해 Ant Financial(舊 알리페이)의 Telenor Microfinance Bank 지분 45%를 인수한 바 있음
- Daraz사는 배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문 물류 자회사인 Daraz Express(DEX)를 설립, 對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음
- 온라인 셀러 지원을 위해 파키스탄 전역에 4개의 대형 웨어하우스와 50여 개의 서비스 허브(Service Hub) 마련, 해당 거점에 판매 물건을 맡기면 고객에게 적시 배송 가능
- Daraz 구매 오더의 50% 이상이 카라치, 라호르 등의 대도시 이외의 교외·농촌 지역에서 발생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산업재) 중-파 FTA 2단계 협정상 틈새 진출 기회 모색
 - 파키스탄이 보호 품목으로 지정한 1,760개 품목 중 기존 對중국 수입 비중이 낮은 품목군에 대한 반사적 기회 존재
 - * 파키스탄연방상공회의소 Korea Group 분과위원장(Sohail Nisar)에 따르면, 운송수단(173개), 화학(98개), 농업(90개), 플라스틱류(85개) 품목군은 수입시장 내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30% 미만으로 한국 기업에게 오히려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
 - 다만, 중-파 FTA 2단계 협정을 계기로 주력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노력이 강화될 전망으로, 단순 수출 외에도 기술협력 및 합작투자 등으로 진출 방식을 다변화하면서 접근 필요

- (소비재) 우수한 품질을 토대로 상품 인지도(Awareness) 제고 마케팅 강화
 - 가격 중심의 파키스탄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타깃 소비자군을 명확히 하고 테스트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제고가 중요
 - * FTA 부재 등으로 중국·말레이시아산에 비해 가격에 열위인 우리 제품은 차별적인 디자인, 틈새 타겟팅 등을 기반으로 공략
 -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은 실제 체험 후에는 프리미엄 가격을 내고 구입할 동인이 생기는 가치구매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 * (진출 포인트) 단기적 성과보다는 초기에는 품질과 이미지를 명확히 인식시킨 후, 구매층이 형성되었을 때 입소문을 통해 소비층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전략 필요
 - * (유망 소비재) 코로나19로 한국산 홈코노미(라면 등 간편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관심 확대

- (소비재) 해외 브랜드 수입 전문 벤더 및 대형 유통망과의 네트워크 구축 확대
 - (오프라인) 해외 브랜드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바이어 및 프리미엄 소비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망과 협력 플랫폼 구축
 - * Carrefour Pakistan, Springs Store 등 현지 중상류층을 타깃 프리미엄 유통망과 협력관계 구축
 - * (진출 포인트) 현지 유통망과 한국 제품 전용 팝업스토어를 운영, 한국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바이어들의 판매 채널로 활용함으로써 테스트 마케팅 및 브랜드 홍보의 거점화
 - ☞ 팝업스토어 플랫폼에 참여한 벤더의 네트워크를 활용, 온·오프라인 동시 공략 가능



「Springs Store K-프리미엄 팝업스토어」운영 (카라치 무역관)

- (사업명) 파키스탄 프리미엄 유통망 팝업스토어 운영
- (입점 지원) 현지 유통망 입점, 他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연계
- (기간/장소) '23년 11월 / Springs Stores 매장 (카라치 소재, www.springs.com.pk)
* 파키스탄 최대의 도시인 카라치시 중상류층 상권 내 소재 수입 브랜드 전문 판매 매장
- (마케팅/판촉) 마케팅 인력 상시 배치, 명절 연계 판촉전, 온·오프라인 홍보 등
* 한류박람회 판촉전,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 사업 연계 판촉전 등 주기적 홍보 이벤트 개최
- (직전 행사 참가 규모) 2020년 파키스탄 진출 유망 소비재 기업 21개 사 35개 품목 내외
- (주요 품목) IT 기기 및 액세서리, 화장품, 헤어케어, 주방기기, 할랄 인증 식품 등

- ◆ 한국 제품 전문 바이어(벤더)와 협력, 그들의 신규 품목 소싱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벤더가 독자적으로 하기 힘든 신규 유통 채널 발굴 및 제품 홍보를 KOTRA가 지원
- ◆ 또한 해당 벤더 지원을 통해 벤더가 자체 보유한 소매망 네트워크도 활용 가능

- (온라인) 소비자에게 직접 적기 배송하거나 온라인 유통망의 물류센터에 제품을 배송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협력업체나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
- * 대부분 온라인 쇼핑물은 직접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B2C 마켓플레이스만 제공
- * (진출 포인트) IT 제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Telemart CEO에 따르면 해외 제품의 많은 물량이 두바이 등 제3국의 물류센터를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파키스탄 바이어가 많이 방문하는 중동 지역 전시회 참여 및 제3국 소재 에이전트 발굴도 병행할 것을 권고

파키스탄 유통시장 공략을 위한 KOTRA 카라치 무역관 제언

- 저소득 신흥국 소비자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제품 선정 및 개발 필요
 - 파키스탄 소비자는 고가격·고품질 제품보다는 중저가의 평균적인 품질과 사양 제품 선호
 - 초기에는 마진이 작더라도 품질과 이미지를 명확히 인식시킨 뒤, 구매층이 형성되었을 때 정상적인 마진 가격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전략 필요
 - 기존 제품을 수출하기보다는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를 좌우하는 핵심 구매결정 요인(Key Buying Factor)을 파악하고 디자인과 기능을 간소화하는 등 신흥국 맞춤형 R&D도 적극 검토
 - 가격 인하를 위해 완제품 수출방식에서 현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CKD 조립생산도 검토
 - ⇒ 2억 명의 거대 소비시장을 타깃으로 한 투자는 향후 수요 확대 시 충분히 보상 가능
-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알리바바의 사례를 참조하여 현지 온라인 시장 진출 모색 가능
 - 알리바바 그룹은 2017년 5월 파키스탄 무역진흥기관(TDAP)과 MOU를 체결,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현지 유력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 인수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 확대도 검토 필요

3-3. Make in Pakistan 확대를 소부장 협력 강화로 연결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움직임 확대
 - * 파키스탄은 자국 산업 육성 확대, 파키스탄 기업의 GVC 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참여 추진
- 수출 확대, 경제의 생산성 제고, 고용 창출 등 위한 투자 유치와 산업협력 확대 추진
 - * NTP 2019-24, 전기차 육성정책, 핸드폰 제조업 육성정책, SEZ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
- CPEC 투자,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 지속, 코로나19 확대로 승용차·상용차 수요 다대
 - * 세계 6위 인구(2억), 높은 젊은층 인구 비중, 인구 1,000명당 13대라는 낮은 자동차 보유율, 소비자의 일본 자동차의 시장 독점 완화 요구 등으로 산업 재편이 진행 중
- 자동차산업 육성정책(ADP 2016-21)으로 한국 브랜드 차량의 현지 생산 및 판매 증가세
 - * ADP 2016-21 정책 만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부품 국산화 프로젝트 증가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Make in Pakistan을 통한 수출 확대, 고용 창출, 경제성장 추진
 - 관세구조 합리화(Tariff Rationalization), 수출 확대와 연계된 산업협력과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 강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
 - 완제품 수입 억제를 위해 중간재 관세 인하(National Tariff Policy 2019~24), 부품 국산화 확대(자동차부품, 핸드폰 등)를 통한 제조 역량 강화 추진

- 2020년 6월, 파키스탄 현지에서 핸드폰을 조립 생산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부품 국산화 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Mobile Device Manufacturing Policy를 발표

「Mobile Device Manufacturing Policy」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 파키스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Production) 산하의 Engineering Development Board(이하 EDB)는 지난 5월 21일 핸드폰 제조산업 육성정책(Mobile Device Manufacturing Policy, 이하 MDMP)을 입안하고 6월 2일 총리 주재 각료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
- 현지에서 핸드폰을 제조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엔지니어와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로부터 투자와 기술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목표임
- MDMP 2가지 정책 골자는 다음과 같음
 - ① CBU 수입을 현지 조립생산(CKD/SKD)으로 유도하도록 세금 감면 조치를 2023년까지 제공
 - * 완제품 수입이 아닌 현지 조립 시에는 기기당 95~150달러의 가격 인하 효과 기대
 - ② 핸드폰 기기 연관 산업을 육성해 부품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부품 국산화 비율 목표와 달성 기한을 정해 2023년 6월 30일까지 핸드폰 부품 국산화율을 49%까지 올리는 것임

적용 기한	부품 국산화 분야	국산화 비율 목표
2022.06.30 (End of Year I)	현지 조립공장 설립 및 조립생산 시작 * 조립비용 제외	8%
	포장 재료 (Packing Materials)	2%
2023.06.30 (End of Year II)	충전기	2%
	블루투스 핸드프리	1%
	PCB 조립(Mother Board Assembly) * 조립비용 제외	10%
	하우징(부품 덮개) 및 기타 플라스틱 부품 등	8%
	디스플레이	8%
	배터리	10%

자료: Pakistan Engineering Development Board

- 경기 침체에도 현지 조립 생산된 기아·현대 브랜드 차량의 판매는 호조
 - 2022년 시작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신차 판매 연속 감소 기록(5.9%), 상업용 차량 판매 6.3% 감소 전망
 - *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2.1%로 신차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 연간 판매량은 209,000대로 증가 전망됨
 - 다만, 현지 조립 현대기아차는 시장 진입 첫해에 품질과 디자인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점유
 - * 기아력키는 카라치에서 2019년 7월부터 스포티지 모델을 생산, 2019/20 회계연도 시장 진입 첫해에 약 1만 대가 넘는 판매실적(10% 시장점유율)을 거둔 것으로 추정
 - * 현대니샤트는 2020년 1월부터 Porter 생산을 시작, 하반기에는 SUV(투산)·승용차(소나타) 모델 등도 순차적으로 양산할 계획

- 파키스탄 자동차 산업은 GDP의 2.8%, 제조업의 20%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으로서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율은 13대에 불과해 성장잠재력 다대
 - * IMF 경기 침체로 르노와 폭스바겐의 현지 조립공장 설립은 지연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의 Proton 제조 공장 설립은 양국 정상 간의 경제협력 확대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진행 중
- K-브랜드 OEM은 안전성과 품질을 중시하는 고소득층 소비자의 마음을 공격적인 A/S 서비스와 함께 공략해 좋은 성과를 창출
- 현지 車부품 기업은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생산역량·기술개선 추진
 - 규모(scale)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에서 파키스탄의 설비가동률*은 매우 저조하고 이는 전체 부품의 40%를 차지하는 현지 부품기업의 취약한 경쟁력과 낮은 설비가동률에 기인 (World Bank, 2017)
 - * World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OEM 기준, 인도 66%, 중국 90%, 파키스탄 43%의 설비가동률을 기록했으며, 현재에도 파키스탄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본·중국·한국의 현지 완성차 OEM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부품 협력사들의 해외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서 생산과 기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유치 및 산업협력 노력 강화

- 주력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 확대
 - 농업, 섬유, 자동차, 에너지 부문 등에서의 기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유치 및 해외 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지속 확대
 - 제조업 및 수출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극복을 위해 특별경제구역(SEZ)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산업협력 확대를 도모
 - * 2020년 현재 파키스탄 전역에서 승인된 SEZ는 총 22곳이며 이 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된 곳은 9개로 전체의 41% 차지

파키스탄 경제특구법 주요 내용 및 인센티브

- ① 특별경제구역의 최소 면적은 50에이커(약 202,000㎡)로 제한
- ② 파키스탄 투자청(BOI)이 각 SEZ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
- ③ SEZ 개발자 및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수입에 대한 일회성 관세 면제 혜택 제공
- ④ SEZ 개발자에게 5년간 Income Tax 면제 혜택 제공
- ⑤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제품 생산을 시작한 입주자의 경우 10년간 Income Tax 면제, 이후 생산을 시작하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5년간 Income Tax 면제 혜택 제공

자료: Pakistan Board of Investment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수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집중 공략
 - 현지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소부장 분야의 현지 진출 확대를 모색
 - * 파키스탄은 산업 기반이 미약하여 Make in Pakistan 확대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부자재와 부품·설비 등의 수입 성향(propensity to import)이 매우 높음
 - 국가관세정책 5개년 계획(NTB 2019~24)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관세 면세 및 인하가 추진되는 소부장 품목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
- 기술제휴, 합작투자 등 다각적인 진출방식을 고려 (수출 중심 ⇒ 융복합)
 - 루피화 가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EIU 등에 따르면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
 - 달러를 보유한 우리 기업은 파키스탄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현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어, 對파키스탄 수출이 유망한 우리 기업은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도 적극 검토
 - * (유망 분야) 노후화된 생산설비 업그레이드, 자동차부품 국산화 협력을 위한 기술제휴, 농식품 및 수산물 가공 분야, 석유화학 및 비료 등 화학제품, 전자통신 기기 등
- 코로나19를 계기로 파키스탄을 분산화된 수출 거점 중의 하나로 활용
 - 저렴한 인건비, 수출 진흥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확대, Look Africa Initiative 등의 기회요인을 활용, 현지 생산·가공 거점 투자를 추진
 - * (사례) ㈜금양은 발포제 생산 공장을 카라치에 소재한 빈카심 SEZ에 건립 추진(2019년 8월) →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원가 절감 및 근거리를 활용한 중동·아프리카 시장 확대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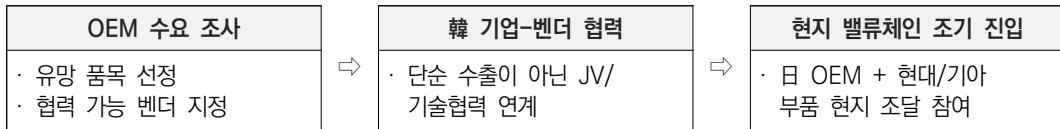
중국 기업의 파키스탄 내 스마트폰 제조 기반 구축 사례

- 최근 중국계 스마트폰 기업이 파키스탄을 대안적 제조업 생산 및 수출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대 시장, 파키스탄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미·중 갈등 심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분산, 중국보다 저렴한 노동력 활용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
- 중국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Trassion Holdings사는 카라치에 파키스탄 최초의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2020년 2월부터 생산 및 판매를 시작
 - * Trassion Holdings사는 중국 Shenzhen에 본사를 둔 스마트폰 제조기업으로서 주로 서남아(인도,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에티오피아)에서 스마트폰을 제조 또는 판매 중
- 해당 공장에서 제조되는 Infinix 브랜드 모델은 현지 최초의 해외 브랜드 핸드폰으로서 연간 300만 대의 생산 역량을 보유 (공장 인력의 60%는 여성으로 고용해 사회적 가치도 제고)

- 현지 자동차 부품기업과의 기술협력 등 상생협력 파트너십 추진 확대
 - 신모델 개발, 부품 국산화, 제조 역량 제고 등을 위한 파키스탄 자동차 완성차 OEM 및 벤더와 한국 부품기업 간 파트너십 수요 증가 활용

- 자동차 부품업체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일본 및 한국 자동차의 부품 밸류체인 구축 지원
 - * 일본 OEM 벤더의 설비 및 기술력 취약, 현대·기아차 재진출 확정 등의 기회요인 활용
- 파키스탄 시장을 독점해온 스즈키·도요타 등 日 OEM도 현지 시장 경쟁 확대에 대응, 기존 벤더의 韓 기업과의 협력을 유도
- KOTRA 카라치 무역관의 자동차 부품기업 진출지원사업 활용
 - 한-파키스탄 오토파트츠(산업협력) 콜라보 상담회 및 지사화 사업 참가 등을 통해 완성차 OEM 및 부품협력사와 파트너십을 위한 최적의 1:1 매칭 기회 확보
 - 수출은 물론 기술협력·JV 등 융복합 해외 진출 성과 창출 유도

〈파키스탄 자동차부품 진출 지원 프로세스 (카라치 무역관)〉



「한-파 오토파트츠 콜라보 2018~23」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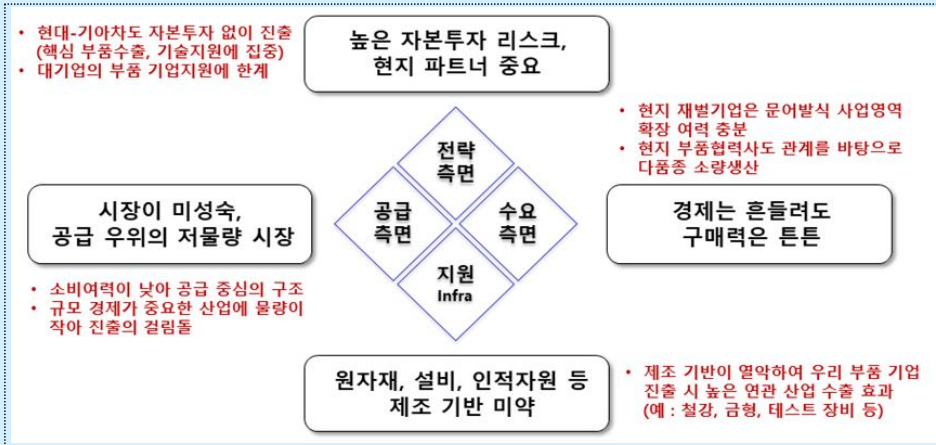
참가 기업	현지 파트너	주요 내용
M사	K사(카라치)	차량용 멀티미디어 및 에어컨 국산화 개발 MOU
	S사(라호르)	차량용 에어컨 국산화 개발 MOU
D사	M사(라호르)	파킹 브레이크 기술협력 및 부품 수출 MOU
J사	P사(카라치)	자동차부품(시트) 프레스 금형 제조 기술협력 MOU
S사	A사(카라치)	자동차부품 프레스 금형 제조 수출 (100만 달러)
E사	A사(카라치)	자동차부품 냉연간판 수출 (30만 달러)
I사	J사(카라치)	속옵서버 부품 개발 기술 지원 협의
S사	H사(파이살라바드)	현대 투산 및 소나타 모델 조립설비 수출 및 기술 지원
A사	D사(카라치)	말레이시아 P사 차량 조립설비 수출 및 기술 지원
S사	B사(라호르)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조립라인 기술 지원
I사	J사(카라치)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출 및 기술 지원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M사의 파키스탄 진출 성공 사례〉

- [사업 기회 발굴] KOTRA 카라치 무역관 주관 2020 한-파키스탄 오토파트츠 콜라보에 참가하여 현대자동차의 현지 제조 파트너사인 현대니샤드(100% 파키스탄 지분)사는 물론 현지 자동차 부품 제조 벤더 기업들과 미팅 성사
- [사업 진행 과정] 코로나 상황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열악한 보건위생환경, 치안 위험)에서도 카라치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현대니샤드와 지속적으로 원격 사업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음
- [사업 성과] 코로나19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파키스탄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신규 틈새 기회를 발굴하여 '21년 170만 달러(약 20억 원) 수출실적을 창출함
- [성공 포인트]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여러 틈새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파키스탄 고소득층 사이에서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우수한 현대차(소나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출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미개척(위험지) 신흥시장에 소재한 KOTRA 무역관을 활용해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음

〈한-파 자동차 산업협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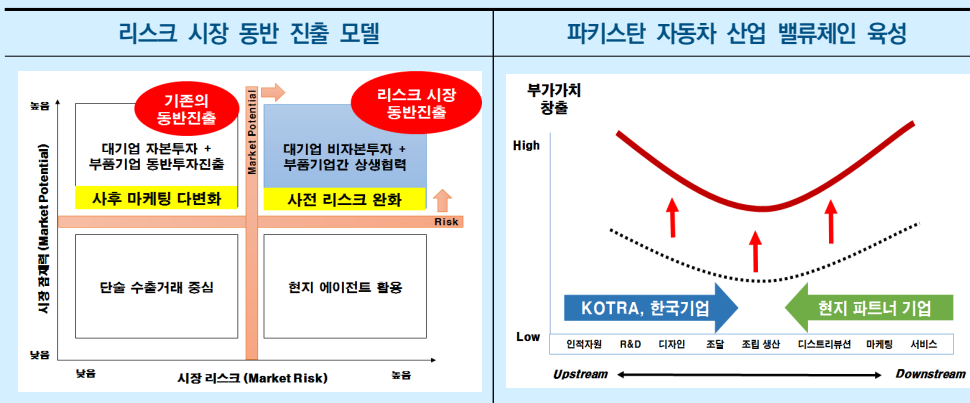
【환경 분석 : 파키스탄 자동차 산업 경쟁력 현황 분석】



【 파키스탄 모델 : 자동차 부품기업 대·중소 동반 진출 지원 방향 】

구분	기존 (既 진출기업 마케팅 판로 확대)	변형 (진출 리스크 완화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투자 진출 부품기업의 현지 마케팅 판로 다변화 지원 (사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 풀링(Pooling)을 통한 사전 진출 리스크 완화 (물량 문제 해소)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위주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 기술협력 + 조인트 벤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수출 중심 연관 산업 수출 효과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투자협력으로 연결 원자재 및 설비 연관 수출

【(종합) 韓 자동차부품 기업의 파키스탄 진출의 상생 효과】



3-4. IT 및 의료제약 등 미개척 新시장 진출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파키스탄 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진출 기회 제공 확대
 - * 프래랜서 개발 분야 세계 4위, 300여 개 외국계 기업 IT 외주 수행, 16개 SW 기술 단지 보유
- 인구 증가로 의료 및 의약품 수요 증대
 - * 의료 인프라 및 의료진 역량 부족, 의료기자재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 자체 생산 미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방대한 인적자본 활용 IT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산업 성장 추세
 - 디지털 IT 분야의 GDP 기여율을 '19년 2.7% → '25년 13%로 늘리고자 함
 - * 15~29세 젊은층이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 영어를 구사하는 IT 인력 60만 명, 매년 25,000명 이상의 IT 졸업생과 엔지니어가 배출
 - * 향후 2년 내 디지털 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 시 GDP 7% 증가, 400만 개 일자리가 창출, 2,630억 달러 이익 실현 전망(Better Than Cash Alliance, '23.10)
 - IT 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은 정부의 중점 수출 육성 부문으로 선정, 추진 중
 - *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IT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Digital Pakistan Policy'를 발표(2018) 및 전략적 수출 육성 부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전략 발표(2022)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IT 통신 인프라 향후 성장 가능성 매우 높음
 - * 파키스탄의 통신 부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미발전한 분야로 기술 인프라 낙후, 통신망 보급 및 사용자 침투율 저조, 각종 규제
 - * 2024년에는 5G 상용화 예상, 고정 회선은 2023~27년간 평균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 인터넷 사용자 침투율은 연평균 19.5%로 급속 성장
- 의료 인프라 및 병원 운영 역량 부족,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로 현지 만성적인 의료 인력 공급 부족
 - 향후 5년 내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9.2% 성장, 의약품 판매는 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건강보험 범위 확대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

-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최근 5년간 1인당 병상 수 및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아직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아 국제기구 등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 * 병원 건설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서비스 역량이 부족하며 병원 운영 서비스·컨설팅 분야, 병원 신축공사 사업 관리 및 엔지니어링 용역 서비스 유망
- 의료 기자재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 자체 생산 미미(일부 수술도구 등)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파키스탄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기회 발굴
 - 23륜EV, EV버스, EV충전기, 배터리팩 조립, 충전소 건설 등 스마트 교통(e-모빌리티), 모바일 등
 - * 자율주행 시스템, 배터리, 충전 인프라, 농업용 전기차, 전기버스, SW 등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VR 구축,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개발협력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통한 ICT 수출 지원 강화, 전자정부 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정책 활용
- 필수 의약품 및 현지 기술 부족 제품 집중 공략
 - 현지 외환 부족으로 수입 통제가 빈번하나 필수 의약품은 수입 우선 순위
 - * 현지 합작을 통한 기술 제휴 및 공동 생산, 제3국(한국 포함) 수출 기회 활용
 - 기술 우위 및 유럽 제품에 비해 저렴한 고품질 의료기기 및 치과 기자재
 - * 현지 중상류층 대상 고급 의료 수요에 부응,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비해 차별성 보유

「Digital Pakistan Policy」와 우리 기업의 활용 전망

- Digital Pakistan 정책은 크게 4가지 부문에서 ICT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
 - ① 소프트웨어 수출 확대, ② IT 하드웨어 생산 촉진, ③ 핸드폰 제조업 육성, ④ IT Park 구축
-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기능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자원 부족으로 EDCF 등 유상 원조, PPP 등 민자 유치, 장기 리스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유망 품목) PC, 노트북, 핸드폰, 네트워크 장비, LED, 안전 및 보안 시스템 제품 등

3-5. 경험 공유(KSP)를 통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 강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10차 한-파 정책협의회('18.11월)에서 외교부는 파키스탄을 개발협력 분야 신남방 중점 파트너 국가로 지정
→ IMF 구조조정과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 대외 원조를 통한 개혁 추진 불가피
- KSP 정책 컨설팅을 마중물 삼아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계기를 마련하고 협력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양국 상생발전에 기여 필요
- 경제성장이 실물경제(downstream)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
 - * 6대 개혁정책 방향 중의 하나인 경제성장(economic growth) 세부 과제에 있어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전통 제조업 수출 증진 등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강조
-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사업 기회 발굴
 - * 국제기구 원조(ODA) 및 차관(EDCF) 활용, 현지 탄소 감축 프로젝트 참여 적극 모색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은 경제성장의 걸림돌
 - 경제성장의 효과가 실물경제(downstream)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
 - * 파키스탄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320만 개), GDP의 40%를 차지
 - 그러나 파키스탄 중소기업은 낮은 품질, 표준 및 규격 부재, 장비 노후화, 원자재 부족, 인적자원 역량 미흡 등으로 성장에 애로
- 파키스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GVC 분산화에 대응
 - CPEC를 추진 중인 중국도 인프라 투자 위주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산업간 협력을 중시하는 CPEC 2단계로 '19년부터 진입
 - * World Bank도 총 620억 달러에 달하는 CPEC의 성공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좌우할 것으로 평가
 - 아울러 미·중 갈등 우회를 위해 파키스탄을 대체 생산기지로 육성
 - * 파키스탄 섬유기업 대상 기술 이전, 합작투자로 對美 의류 수출 활로 모색
- 파키스탄 온실가스 감축사업 적극 참여로 양국 간 상생협력 강화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시행하는 CDM 사업의 감축 실적으로 탄소배출권 확보
 - * 파키스탄은 2030년까지 BAU 대비 20% 감축 목표 제시
 - 파키스탄 석탄 화력발전 등 과다 탄소 배출 산업구조의 전면적 재편 필요
 - * 청정 석탄 가스화 기술 적용,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강화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한 산업 분야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내실 있는 경제성장 및 대외 부채 축소를 위해서는 농업·섬유 등 1차산업 위주의 저부가가치 경제구조에서 탈피, 제조업 육성을 통한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국내외 밸류체인 구축에 대한 관심 다대
 - 정부는 자동차, IT, 가전, 식품가공, 가축, 어업, 광물 산업 등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에 전략적 우선순위 부여
 - 한국의 대-중소기업 협력 경험 공유에서 더 나아가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산업무역투자 KSP를 기업 간 협력 확대의 마중물로 활용
 - 파키스탄 중소기업개발청(SMEDA)은 KSP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사례 및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자국 중소기업 발전 및 GVC 편입을 지원 추진
 - *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한국의 발전 경험을 기초로 경제협력 전략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연구, 자문, 교육훈련 등이 통합된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시행
 -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산업무역투자 KSP 정책자문 추진 가능
 -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 시스템, 관련 제도 및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경험 공유 및 양국 간 B2B 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 * 중소기업의 로컬 밸류체인 및 GVC 진입은 로컬 및 해외 대기업의 지원과 협력 하에 가능
- 현지 탄소 감축 프로젝트 사업 참여 기회 다대
 - 청정 석탄 가스화 기술 도입,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
 - * 현지 전기차 도입 추세(중국산) 확대, 수력발전 건설 및 태양광·소형 풍력 발전 건설 수요 증가세
 - 온실가스 감축사업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감축 관련 법령 부재로 아직은 외국 기업 투자가 미미함
 - * 현지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제품 선호, ODA 및 차관 활용 파이낸싱 리스크 관리로 진출 모색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축 지원 KSP」 내용

- 사업명 : 파키스탄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방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신청 기관 : 중소기업개발청(SMEDA :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uthority)
- 한국 측 전문가 그룹 : 현대경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 사업 기간 : 2020.11월~2021.8월 (잠정)
- 주요 내용
 - (정책자문) 한국의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 경험을 분석·공유하고 파키스탄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 방안,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방안 및 한-파키스탄 협력 모델(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등을 제시
 - (방한 연수) SMEDA 및 주제 관련 부처 공무원 초청 연수
 - (연계사업) 경제협력 기반 구축 사업(방한 연수 등을 활용, 기업 간담회, 상담회 등 개최 등)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p>편직기 (Knitting Machine)</p> 	선정사유	파키스탄 정부는 섬유 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섬유 기계 및 제조 분야 투자를 지속 시행 중이며, 향후 편직기 등 섬유 기계 수요의 안정적인 증가세 예상
	시장동향	파키스탄은 섬유 가공 기계인 편직기 수요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021년 (C) 파키스탄 편직기 수입시장 규모는 약 8,600만 달러이며 중국(6,700만 달러)이 약 78%의 시장점유율로 1위, 이탈리아(700만 달러) 2위, 한국은 11위를 차지
	경쟁동향	현지 편직기 시장에 진출한 주요 국가는 중국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이탈리아·일본이 뒤를 잇고 있음
	진출방안	수입 및 유통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A/S까지도 수행 가능한 전문적인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 KOTRA 카라치 무역관을 통해 주요 에이전트 후보를 발굴하는 것도 가능함
<p>건설기계 (Construction Machinery)</p> 	선정사유	발전·주택·상업 건설 경기는 IMF 구조개혁으로 다소 침체되어왔으나, 코로나19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부문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신정부의 주택 500만 호 건설 프로젝트 등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 중장비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
	시장동향	HS CODE 8429 및 8430을 합산한 2021년 수입시장 규모는 약 1억 1,400만 달러 수준으로, 각 국가 점유율은 중국 39%, 한국 20% 등임
	경쟁동향	저렴한 제품 위주로 현지 시장점유율의 약 39%를 차지한 중국 외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일본·미국 등 국가 제품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은 편임
	진출방안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요인으로서 파키스탄 전역에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현지 유력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케팅 방법임
<p>자동차 부품 (Autoparts)</p> 	선정사유	2020년 기아와 현대차 OEM의 현지 조립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對파키스탄 주력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일본 자동차 브랜드도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품 업그레이드에 관심이 많음. 현지 부품기업들의 낮은 생산성과 기술력으로 해외 기업과의 기술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시장동향	2021년 파키스탄의 전체 수입 규모는 3억 78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 제품의 수입 규모는 978만 달러였음. IMF 구조개혁과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었으나, 한국 브랜드 차량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경기 침체로 신차 구입을 연기하면서 반사적으로 애프터마켓 부품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경쟁동향	일본 부품이 시장을 지배해왔으나, 점차 일본 외에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이 시장이 진입하면서 가성비가 좋으며 다양한 제품에 공급이 가능한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기아 및 현대자동차의 현지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부품의 진출 기회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진출방안	단기적으로 자동차부품 전문 수입상과 현지 완성차 OEM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OEM과의 협력 및 관련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현지 부품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p>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Polyester Filament Yarn)</p> 	선정사유	섬유 가공품은 파키스탄의 대외 수출 비중 1위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 품목임. 파키스탄 정부는 2019년 8월 이래 IMF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섬유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음. 이는 곧 섬유 가공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수요 증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2021년 파키스탄 전체 수입 규모는 1억 3,26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세를 보임. 2021년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48만 달러 수준으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꾸준히 수입시장 내 5~10위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경쟁동향	현지에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제조기업은 Ibrahim Fibers Limited 및 ICI Pakistan Limited사가 있으며, 시장 전체 공급의 약 20% 점유율 차지. 그 외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산 등 제품이 현지 시장에 잘 알려져 있음
	진출방안	펀자브 지방의 시알코트 및 파이살라바드는 파키스탄 전체 섬유 가공업체의 대부분이 밀집해 있는 지역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 협상 등을 대신할 바이어를 현지 에이전트로 지정할 경우 에이전트의 판매망을 활용해 원활한 현지 진출이 가능함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의료 서비스	선정사유	만성적인 의료 인프라 및 병원 운영 역량 부족
	시장동향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20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병원 의료 서비스에 약 228억 루피의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 예산 98억 루피 대비 133% 증가한 수준임.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최근 5년간 1인당 병상 수 및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아직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아 국제기구 등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경쟁동향	인력의 해외 유출로 의료 서비스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
	진출방안	병원 건설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서비스 역량이 부족하며 병원 운영 서비스·컨설팅 분야, 병원 신축공사 사업관리 및 엔지니어링 용역 서비스 유망 (현지 정부인사와 네트워크 구축 중요)
품목명 2		
건설 서비스	선정사유	CPEC(에너지, 인프라 등) 및 국제기구 지원 프로젝트 지속 등으로 파키스탄 건설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시장동향	발전 프로젝트의 O&M 서비스는 물론, 신정부의 핵심 공약인 저소득층 500만 호 주택 공급 등이 본격화될 경우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기업과의 제휴가 늘어날 전망. 파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연말까지 유효한 세금 감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한 상황
	경쟁동향	가격 중심의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현지 건설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기술과 디자인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 존재
	진출방안	발전 프로젝트의 O&M 서비스 진출 등은 여전히 유망하며, 주택 및 상업단지 개발 설계 및 감리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진출 기회가 집중 확대될 전망
품목명 3		
자동차부품 기술 수출	선정사유	현대·기아자동차의 재진출로 시장 경쟁이 확대되면서 현지 부품기업은 품질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제휴 수요 증가
	시장동향	일본 브랜드 차량의 품질 개선, 신규 글로벌 브랜드 차량의 부품 국산화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기술지도·로열티 협력이 증가세
	경쟁동향	중국 기업의 현지 기업과의 기술협력 사례도 늘고 있으나, 다양한 브랜드 제품에 공급이 가능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아·현대차 납품 가능성을 감안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수요가 높음
	진출방안	완성차 OEM의 기술 개발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현지 유력 부품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KOTRA 지사화 사업 서비스 활용
품목명 4		
할랄 음식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인구 2억 중 50%가 25세 미만으로 새로운 식문화에 개방적이며 음식을 가족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지배적 (BBQ 선호도 높음)
	시장동향	한식 프랜차이즈의 파키스탄 진출 사례는 없으나 카라치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식, 중식, 태국식 등의 퓨전 식당이 존재
	경쟁동향	피자헛, KFC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함께 시나본, 던킨도넛 등 카페 프랜차이즈도 현지 주요 빌딩 내 입점한 상황이며, 최근 PF Chang(퓨전 중식) 프랜차이즈도 진출을 준비 중
	진출방안	할랄 문화권에 기 진출한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외식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 가능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IMF 외환위기 극복 및 경제혁신 기회 활용	파키스탄 방산 기자재 핀포인트 상담회 2024	2분기/카라치
		파키스탄 의료바이오 진출 로드쇼	2분기/카라치
2	Make in Pakistan 확대를 소재·부품·장비 협력 강화로 연결	한-파키스탄 산업협력 콜라보 2024	3분기/카라치
3	중국 제품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마케팅 강화	프리미엄 팝업스토어 운영 및 한국 상품점 (K-Festival) 개최	연중 및 11월/카라치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 (5차년도)	3월 말	9개월 기한
파키스탄 총선	2024년 1분기	연방 및 주 정부 총선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전시회명	일시	비고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Exhibition & Conference	2월	Expo Centre Lahore
International Textile & Garment Machinery Trade Fair	3월	Karachi Expo Centre
Pakistan Auto Show 2024	3월	Karachi Expo Center
International Plastic, Printing and Packaging Exhibition & Conference	4월	Expo Centre Lahore
16th Food Agri, Rice, Livestock, Paper, Packaging, Technology Asia 2024 International Exhibition	6~7월	Karachi Expo Centre
Industrial Electrical Electronics Exhibition of Pakistan	8월	Karachi Expo Center
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And Seminar 2024	11월	Karachi Expo Centre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Fair 2024	12월	Karachi Expo Center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민준호	관장	카라치 무역관	+92-21-3530-3771	jhmin@kotra.or.kr

2024
파키스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BN : 979-11-402-0868-5 (95320)